

◆ FY2006 수입보험료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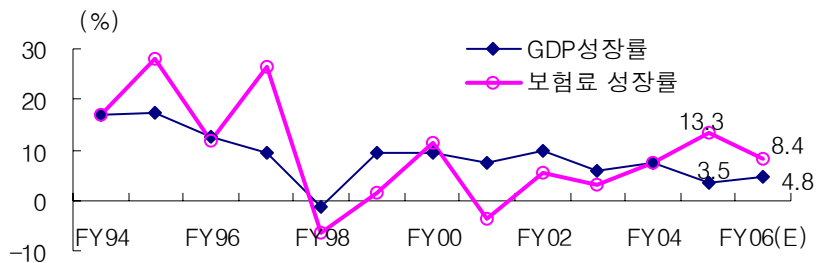
동향분석팀

1. 보험산업 전망 개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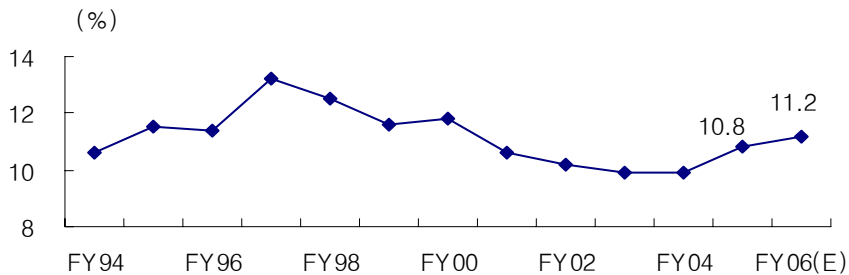
FY2006 보험산업은 경기 둔화 전망에도 불구하고, 연금 및 장기손해보험 등의 수요증가에 힘입어 8.4%의 성장률이 전망되며 보험침투도 역시 확대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.

- FY2006 보험산업은 2006년 하반기 이후 국내 경기 둔화 예상에도 불구하고, 연금 및 장기손해보험 등 고령화에 대비한 상품을 중심으로 성장이 확대되어 FY2005에 이어 2년 연속 경상GDP성장률을 상회하는 8.4%의 견조한 성장이 전망됨.
- 이에 보험침투도는 FY2006 약 11.2%로 전망되어 FY2002 9.9%의 가장 낮은 침투도를 기록한 이후 확대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.

<그림 1> 보험료 성장률 및 경상 GDP 성장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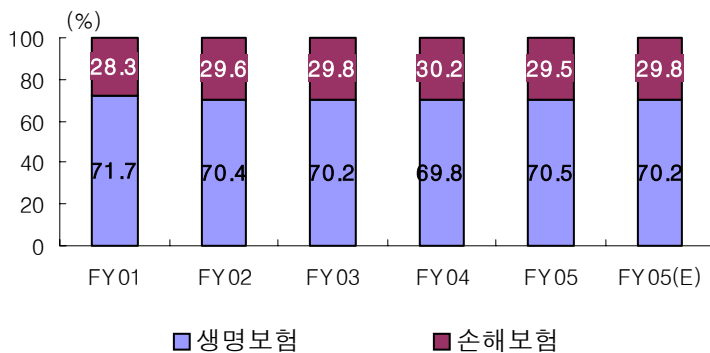
<그림 2> 보험침투도 추이



보험동향 2006년 여름호

- 생명보험은 사망보험과 변액유니버설의 성장정체로 성장률이 8.0% 수준으로 둔화되는 반면, 손해보험은 손해를 악화에 따른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상과 장기손해보험의 꾸준한 확대가 예상되어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성장세가 예상됨.
- 변액보험을 제외하면 생명보험보다는 손해보험의 성장이 꾸준히 확대되어 FY2006에는 손해보험의 점유율이 30%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됨.

<그림 3> 생손보 점유율 추이



<표 1> FY2006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전망

(단위 : 억원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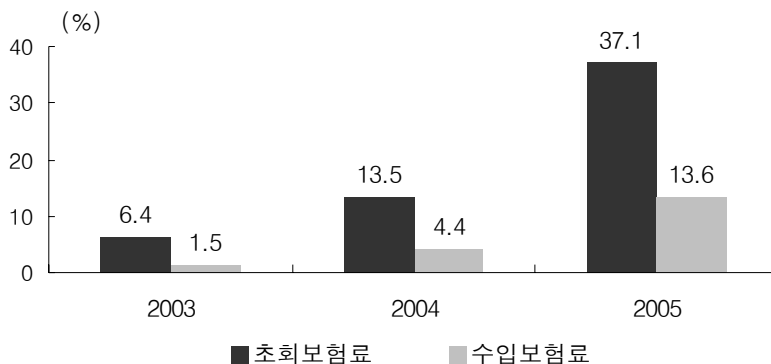
보험종목	FY2004		FY2005		FY2006(F)	
	보험료	증가율	보험료	증가율	보험료	증가율
생명보험	537,396	6.6	614,722	14.4 (13.5)	663,686	8.0 (8.4)
손해보험	232,189	8.6	257,234	10.8 (9.7)	281,808	9.6 (7.2)
전 체	769,585	7.2	834,452	13.3 (12.3)	945,494	8.4 (8.0)

2. 생명보험

FY2006 생명보험은 변액보험의 급격한 성장이 진정되고 퇴직보험의 본격적인 판매가 지연되면서 8.0%의 성장률이 전망됨.

- FY2006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개인보험에서 변액보험의 급격한 성장이 진정되고 단체보험에서는 퇴직보험의 성장률도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8.0%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.
- 2005년 이후 경기회복이 이어지면서 FY2005 생명보험시장은 큰 폭의 성장을 하였으나 2006년 하반기 경제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보험수요도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.
 - 생명보험 수요는 연초에 단행된 종목별 가격조정, 교차판매시행 여부, 설계사 수익증권판매 동향, 변액보험의 사업비 하락에 의한 마케팅전략변화 등이 향후 보험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.
- 보험시장의 성장을 주도했던 변액보험의 성장에 미치는 주가지수가 최근 들어 불안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변액보험의 급격한 성장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음.
 - 변액보험은 주가상승과 밀접하게 성장했는데 연초 KOSPI가 950대에서 2006년 1월 중 최고 1,379p를 기록하였으며, 같은 기간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2005년 4월 3,621억 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월 1조1,493억원에 이름.
 - FY2005 개인보험의 성장률은 변액보험을 제외하면 약 1.6%에 그쳐 거의 정체된 반면 변액보험을 포함할 경우 14.0% 성장해 변액보험이 전체 생명보험성장을 주도하였음.

<그림 4> 변액보험 보험료구성비 추이



- 개인보험의 경우 사망보험의 낮은 성장이 예상되나 변액연금 중심의 한 변액보험의 성장에 힘입어 7.7% 성장할 전망
- 경쟁력을 상실한 생사혼합보험의 감소를 연금을 중심으로 한 생존보험이 대체하는 추세가 지속될 전망
- 단체보험은 2006년 상반기 대기업들의 퇴직연금 가입이 저조하여 본격적인 성장이 의문시 되나 과거 가입된 퇴직보험의 해약을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계속보험료 중심의 10.5%의 성장세를 기대

가. 사망보험

- FY2006 사망보험은 종신보험 성장세가 위축되고, 개인 실손형 건강보험의 저조한 실적에 따라 5.1% 수준의 낮은 성장이 예상됨.
- 당초 2005년 8월에 도입하기로 예정되었던 개인보험 실손보상보험이 시장성에 대한 의구심과 업계간 공조체제의 미흡으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음.
- 보건복지부의 지속적 건강보험 보장성확대로 민간부문의 참여기회가 한정됨에 따라 질병, 상해와 같은 건강보험의 대체수요 전망이 어두움.
- 또한 민영건강보험도 타 보험종목과 달리 보험금지급률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함에 따라 보험회사들이 판매에 소극적인 상황임.
- 변액종신보험도 투자성이 떨어짐에 따라 사망보험 성장을 이끌지 못해 전체 사망보험의 시장 주도력의 감소가 예상됨.
- 최근 사망보험은 변액보험을 포함해서도 FY2004 54.8%에서 FY2005 50.9%로 수입보험료 비중이 소폭 감소하였으나, 같은 기간 초회보험료 비중은 26.0%에서 13.1%로 급격히 감소해 신계약여력이 약해짐.

나. 생존보험

- FY2006 생존보험은 노후소득확보를 위한 투자형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변액연금상품으로 주력상품이 바뀜에 따라 장기적인 수입보험료기반이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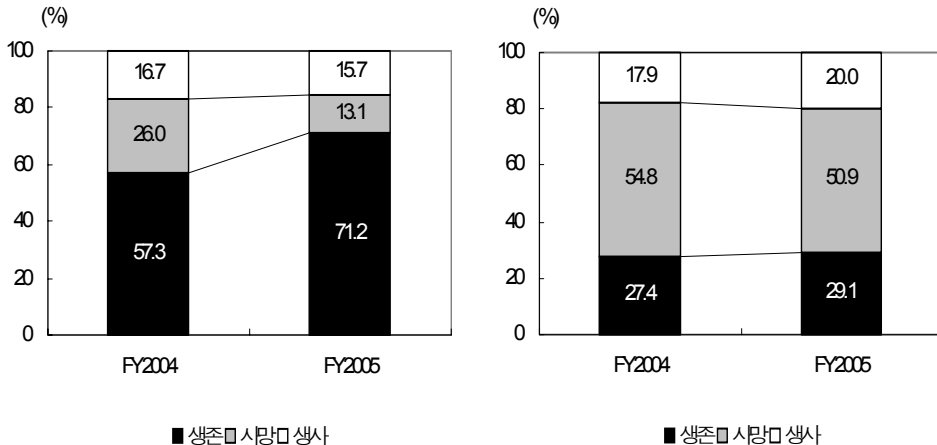
되어 12.7%의 양호한 성장세가 예상됨.

- FY2005 단기성 변액유니버설보험이 급성장했지만 변액연금상품도 294.1%라는 고 성장을 이루어 소비자들에게 장기 투자상품으로서 인식이 확립되고 있어 변액보험을 통한 안정적 수입보험료 거수라는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.
- 변액연금상품은 주가의 불안정한 변동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투자성과를 기대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다른 변액보험 상품보다도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됨.
 - 개인수입보험료에서 생존보험의 비중증가는 소폭(FY2004 27.4% → FY2005 29.1%)이나 초회보험료에서의 비중은 57.3%에서 70%를 상회하는 증가를 보여 개인생명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.

다. 생사혼합보험

- 전통 생사혼합보험의 급속한 퇴조를 대체했던 변액유니버설보험의 수요가 변액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FY2006에는 6.8% 성장하여 전년에 비해 성장률 하락이 예상됨.
- 지난해 세제혜택의 축소와 금리하락에 따른 부리이율하락으로 경쟁력을 상실해왔던 전통 생사혼합보험은 퇴조가 지속될 전망
- 전체 생사혼합보험의 성장을 이끌었던 변액유니버설보험은 2006년 하반기 시장금리의 상승이 전망됨에 따라 경쟁저축상품으로의 자금이탈이 우려되는 등 성장세의 하락이 예상됨.
 - 전체 개인보험 수입보험료에서 생사혼합보험의 비중은 증가(FY2004 17.9%→FY2005 20.0%), 상승추세이나 초회보험료에서의 비중은 다소 하락(16.7%→15.7%)하여, 향후 점진적인 성장감소가 전망됨.

<그림 5> 개인보험 초회보험료 비중 <그림 6>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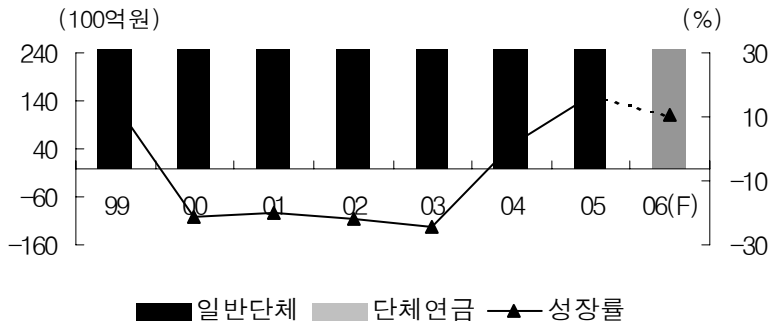


주) 종목별로 변액보험이 포함되었음.

라. 단체보험

- FY2006 단체보험은 퇴직연금의 부진으로 성장세가 감소될 것이나 일반단체보험의 감소세가 완화되고 퇴직보험 계속보험료의 증가로 10.5% 성장 전망
- 평균 20%대의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해왔던 단체보험시장은 FY2004 중 1.1%로 소폭 성장으로 반전하고 2005년에는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신상품효과로 17.1%의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당초 전망을 하회함.

<그림 7> 단체보험 수입보험료 추이



- 퇴직연금제의 안정적인 정착여부가 전체 단체보험 시장의 성장을 좌우할 것으로 보임.
- FY2006에는 일반단체보험도 종업원복지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하락세가 완화되고 퇴직보험의 계속보험료 등에 힘입어 전체적으로 단체보험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

<표 2> FY2006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전망

(단위 : 억원, %)

보험종목	FY2004		FY2005		FY2006(F)	
	보험료	증가율	보험료	증가율	보험료	증가율
개인보험	480,031	7.4	547,521	14.1(12.0)	589,428	7.7(7.8)
- 생 존	131,285	9.1	159,305	21.3(14.1)	179,576	12.7(13.7)
- 사 망	262,964	13.4	278,492	5.9(7.9)	292,695	5.1(4.2)
- 생사혼합	85,782	-9.6	109,725	27.9(21.4)	117,157	6.8(9.1)
단체보험	57,365	1.1	67,201	17.1(25.8)	74,258	10.5(12.9)
합 계	537,396	6.6	614,722	14.4(13.5)	663,686	8.0(8.4)

주 : 1) ()안은 2005년 11월 추정·전망 수치임.
2) 변액보험은 종목별로 개인보험에 포함되었음.

3. 손해보험

FY2006 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인상, 장기손해보험의 계속보험료 유입으로 9.6%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,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경기둔화 전망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임.

- FY2006 손해보험 산업은 2006년 하반기 이후 국내 경기둔화 전망, 금융시장 불안정 요인에도 불구하고 손해율 악화에 따른 요율 인상으로 자동차보험 보험료 규모가 확대되고 장기손해보험의 꾸준한 성장으로 9.6%의 성장률이 전망됨.
- 최근의 경제·금융 환경변화가 장기손해보험 수요에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지만, 방카슈랑스를 통한 저축성보험의 계속보험료 유입과 통합형보험의 인기에 힘입어 당분간 높은 성장률을 나타낼 것임.
- 자동차보험도 FY2005 손해율 악화에 따른 요율인상으로 보험료 규모가 증가할 전

망이나,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경기둔화에 따른 투자부진과 최근 손해율 안정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조정 등이 반영되어 성장이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.

가. 자동차보험

- FY2006 자동차보험은 온라인시장의 점유율 증가에 따른 가격경쟁에도 불구하고,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회복과 2005년 11월 정비수가 인상 및 2006년 4월 보험료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9.4%의 성장세를 시현할 전망이다.
- 2005년 5월 이후 2%대를 유지하였던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은 2005년에 들어서면서 3%대로 증가하여 2006년 3월에는 3.4%의 증가율을 나타냄.

<표 3>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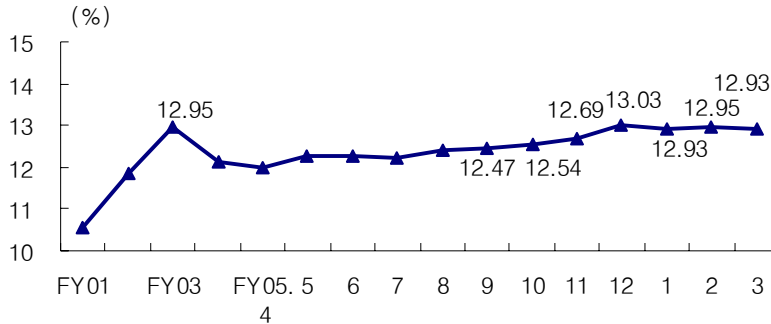
구분	FY2001	FY2002	FY2003	FY2004	2005년 10월	2006년 3월
증가율	7.7%	7.8%	3.3%	2.4%	2.9%	3.4%

주 :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임.

- 최근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자동차등록대수 외에도 각종 수가 조정에 따른 요율 수준, 보상한도액 증감, 온라인 상품을 비롯한 다양한 상품 개발 등 정책적 측면의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.
- FY2006 자동차보험은 9%대의 높은 성장이 전망됨에도 불구하고, 과거 만성적인 보험영업적자 기초에서 탈피하지 못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주요경영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.
- 자동차보험은 2006년 4월부터 보험료 인상이 단행되고, 최근 자동차대수 증가율이 다소 회복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, 온라인 시장점유율의 꾸준한 증가와 보상한도 확대 등으로 손해율이 급격히 안정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됨.
- 과거 자동차사고율 발생 추이를 보면, FY2006에도 자동차사고율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손해율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.
 - FY2005 자동차사고율은 12.93%로 태풍 ‘매미’로 인한 피해규모가 컸던 FY2003 (12.95)%에 이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.

- 폭설피해가 있었던 2006년 12월을 제외해도 FY2005 월별 사고율은 12% 후반 ~ 13%대로 높게 나타나 교통법규위반자 사면, 모형단속카메라 철거 등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.

<그림 8> 자동차사고율 추이



자료 : 보험개발원, 『월말보고서』, 각 월호.

- o FY2006에는 9%대의 보험료 성장 전망으로 적자폭이 다소 축소될 수는 있겠지만, 가격경쟁 및 손해를 악화 지속적으로 수익성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임.
- FY2005 자동차보험의 보험영업이익은 -6,578억원으로 태풍 ‘매미’로 인한 피해가 있었던 FY2003보다도 손실규모가 655억원 손실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.
- 특히, 온라인 시장 확대 등 보험회사간 M/S 확보 경쟁이 격화될 경우 합산비용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음.

<표 4> 자동차보험 시장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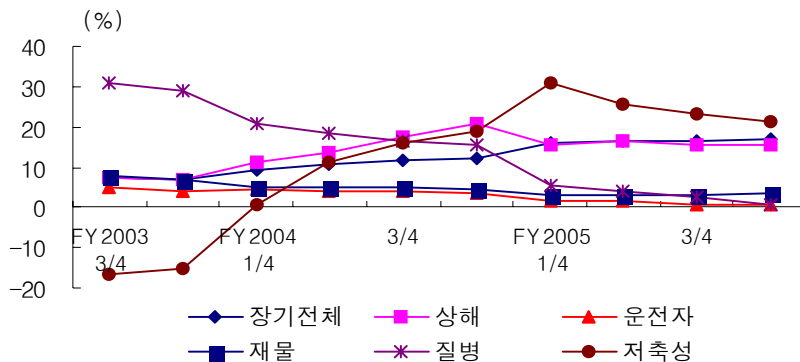
구분	FY2001	FY2002	FY2003	FY2004	FY2005
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		7.8%	3.3%	2.4%	3.4%
온라인비중	-	2.0%	4.5%	7.2%	10.2%
손해율	67.6	68.4%	76.7%	72.2%	76.6%
사고율	10.54%	11.85%	12.95%	12.15%	12.93%
보험료성장률	14.8%	6.1%	0.6%	7.0%	3.1%
보험영업이익	△96억원	△426억원	△5,923억원	△3,708억원	△6,578억원

자료 : 보험개발원, 『업무보고서』, 각 년도.

나. 장기손해보험

- 2006년 하반기 들어서도 장기손해보험은 방카슈랑스를 통한 저축성보험과 통합형보험을 중심으로 당분간 성장이 지속될 것임.
- FY2006 장기손해보험은 장기저축성보험의 성장이 다소 감소할 전망임도 불구하고, 계속보험료 유입으로 꾸준한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, 통합형보험을 중심으로 한 상해 부문의 보험료 증가가 지속되어 11.2%의 성장이 예상됨.
- 최근 장기손해보험의 고성장은 주로 방카슈랑스를 통한 판매 허용 이후 저축성부문과 통합형보험 등 상해부문의 성장세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.
- 이 외에도 2006년 10월부터 방카슈랑스를 통한 만기 환급형 제3보험의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장기손해보험 보험료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.

<그림 9> 장기손해보험 부문별 성장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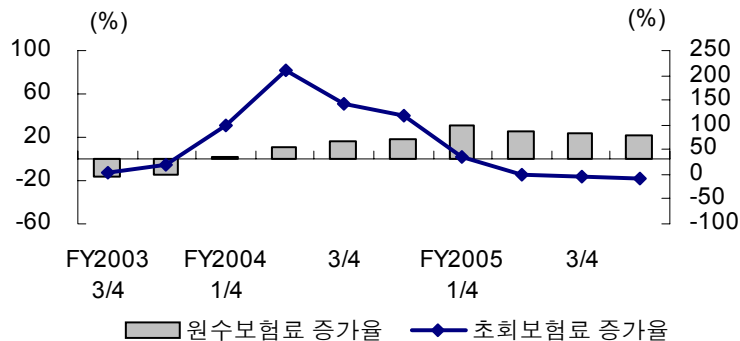
자료 : 보험개발원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.

- 장기손해보험 부문별 성장률을 보면, 저축성 부문과 상해부문이 전체 장기손해보험을 상회하는 성장을 시현한 것으로 나타남.
- 장기저축성보험은 2003년 8월 방카슈랑스 허용 이후 판매가 급격히 증가하여 최근 전체 장기손해보험 성장을 견인하여 왔음.
- 방카슈랑스 허용 이후 FY2004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증가하여 FY2004 2/4분기

에는 초회보험료 성장률이 209.2%를 기록하는 등 급성장세를 나타내어 왔음.

- FY2005에는 방카슈랑스 도입 초기 효과가 안정되어 초회보험료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전환되고, 원수보험료 기준 23.0%의 성장을 나타내었음.

<그림 10> 장기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 및 초회보험료 증가율



자료 : 보험개발원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.

- FY2006 장기저축성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으로는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겠지만, 신계약의 증가세는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.
- 2003년 11월부터 피보험자 뿐만 아니라 세대원의 모든 위험을 하나의 증권으로 관리해주는 통합형보험은 보험금 청구의 간편화, 전담 설계사를 통한 통합 리스크관리, 저렴한 보험료 등으로 판매가 증가하고 있음.
- 통합형보험은 초기에는 대형사를 중심으로 판매하였으나, 최근에는 거의 모든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여 FY2005에는 전년 대비 378.1% 성장한 9,127억원으로 화재 및 해상보험을 상회하는 보험료 규모를 나타내고 있음.

<표 5> 통합형보험 원수보험료 추이

(단위 : 억원, %)

구분	FY2004	FY2005				
		1/4	2/4	3/4	4/4	연간
보험료	1,909	1,467	1,965	2,525	3,170	9,127
성장률	-	-	33.9	28.5	25.5	378.1

주 : 분기별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, FY2005 연간 성장률은 전년 대비 성장률임.
자료 : 보험개발원

다. 일반손해보험

- 일반손해보험은 FY2005 대부분 종목에서 견조한 성장을 나타낸 반면, FY2006에는 설비, 건설투자 부진과 수출증가율 둔화 전망으로 기업성 보험에 대한 수요가 축소되면서 성장이 둔화될 전망이다.

○ 특종보험

- 종합보험의 경우 패키지형 보험에 대한 수요 증가, 방카슈랑스를 통한 기업성 보험 확대에도 불구하고, FY2006 보험요율 인하가 단행되고 2006년 하반기 이후 경기 하락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.
- 상해보험은 홈쇼핑 판매 활성화, 기업의 단체보험 가입 등으로 꾸준한 수요가 예상되지만, 민간소비 둔화 등 경기둔화 전망과 보험료 인하로 FY2005보다 낮은 성장을 나타낼 전망이다.

○ 화재보험

- FY2006에는 일반물건을 중심으로 보험료 인하가 실시되어 원수보험료 감소가 예상됨.
- 방카슈랑스를 통한 종합보험으로의 계약 이전, 2006년 건설 및 투자 부문의 부진 전망 등도 보험료 성장을 저해할 것임.

○ 해상보험

- 해상보험은 선박보험 중심의 보험료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나, 수출증가율 둔화 및 보험료 인하에 따른 적하보험 성장률 하락 등으로 1%대의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.

○ 보증보험

- 모기지크레딧보험, 성능보증보험, ABS보증보험, e-biz 보증보험 등 신상품 출시에도 불구하고, 전반적인 실물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보증수요 감소 예상, 유사보증기관과의 경쟁 등으로 FY2005에 미치는 못하는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.

<표 6> FY2006 손해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전망

(단위 : 억원, %)

종목	FY2004		FY2005		FY2006(F)	
	보험료	증가율	보험료	증가율	보험료	증가율
화 재	2,937	-7.1	3,243	10.4 (5.5)	3,142	-3.1 (-0.2)
해 상	5,071	-3.3	5,277	4.1 (5.1)	5,367	1.7 (3.1)
자동차	85,208	7.0	87,890	3.1 (3.0)	96,152	9.4 (4.1)
보 증	9,018	-4.3	10,067	11.6 (1.2)	10,198	1.3 (2.5)
특 종	21,181	13.0	23,513	11.0 (11.1)	25,441	8.2 (9.3)
장 기	96,353	12.3	112,562	16.8 (14.1)	125,169	11.2 (10.1)
개 인	6,799	-1.1	6,976	2.6 (-3.5)	7,276	4.3 (-3.5)
퇴 직	5,622	13.6	7,707	37.1 (58.3)	9,063	17.6 (13.0)
합 계	232,189	8.6	257,234	10.8 (9.7)	281,808	9.6 (7.2)

주 : 1) ()안은 2005년 11월 추정·전망 수치임.

2)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, 부수사업, 권원보험이 포함됨.

4. 시사점

국내 경기 둔화, 주식시장 불안정, 금리상승 등에 따라 보험산업은 다양한 상품 설계 및 위험보장, 철저한 손익분석, 고객관리 등을 통해 성장성 확보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.

- 2006년 하반기 경기 둔화가 예상되고 주식시장도 불안정해짐에 따라 보험산업은 생명보험을 중심으로 성장세 둔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.
- 2006년 하반기 경제상황은 당초 경제전망치보다 둔화될 전망이다 금융시장도 불안정해져 변액보험, 퇴직보험 성장이 둔화되는 양상을 나타낼 전망이다.
- 손해보험의 경우 FY2006에는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상, 장기손해보험 계속보험료 유입으로 9%대의 성장이 예상되나, 장기적으로는 경제금융환경 변화가 손해보험 산업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임.
- 생명보험 산업은 건인차 역할을 하는 변액보험이 주가의 불안정한 등락, 금리상승 등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타금융권 상품과 경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.
- 변액보험자산수익률의 하락과 금리상승에 따른 경쟁상품의 부리이율 상승은 변액보험 성장에 부정적인 요소임.
- 생명보험회사들은 변액보험상품 수익률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투자수요를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보험상품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.
 - 금융시장이 불안한 시기에 변액보험의 지속적인 성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익률이 아닌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노후대비 수단으로 변액보험상품을 설계, 운용할 필요가 있음.
 - 또한 변액보험 수요를 기존 전통형 상품으로 전환함으로써 균형적인 상품포트폴리오를 개발하여 보험회사의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음.
- 손해보험 산업도 9.6%의 양호한 성장이 전망되지만, 최근의 경제, 금융 환경 변화가 장기손해보험을 중심으로 한 가계성 상품 수요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자동차보험의 만성적인 보험영업 적자 구조가 우려됨에 따라 수익성 관리가 필요함.

- 장기손해보험은 방카슈랑스를 통한 저축성보험료 유입 지속, 통합형보험 활성화로 FY2006에는 양호한 성장이 예상되나, 하반기 국내 경기하락 등으로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.
 - 상해 및 질병 부문에서 통합형보험의 판매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나, 생보사의 실손형 건강보험 도입,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범위 확대 등은 장기상해 및 질병보험 성장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것임.
 - 장기손해보험은 손해보험사 고유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위험 보장 상품을 제공함으로써,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철저한 손익관리 및 고객관리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함이 바람직함.
 - 특히, 통합형보험은 판매 및 시장 확대뿐만 아니라,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고객유지율을 제고시킴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자사 마케팅의 기반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.
- 자동차보험의 경우 성장과는 별도로 만성적인 적자구조 지속이 우려되는 만큼, 수익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.
 -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장기적인 사고율 감소 및 손해율 안정화를 도모하고 보험사기 적발 및 감소, 의료·수리비 절감, 사업비 절감에 노력해야 할 것임.